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프타 수급전망

아시아·태평양지역 나프타의 주요공급국인 쿠웨이트의 정제시설 파괴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프타의 공급압박이 '9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틸렌생산능력확대 및 휘발유소비 급증으로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공급은 두국가의 정제시설파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 제한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작년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감수하면서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日本은 원료의 다원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중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 나프타의 주요 공급국인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정제시설 파괴로 나프타의 공급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90년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프타수요는 114.9백만톤인데 반해 域内공급은 수요의 86%인 98.9백만톤, 域外公급은 16.1백만톤에 이르고 있다. 中東수입(14.5백만톤)량은 전체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3.5백만톤을 공급했었다. 국가에 따라 큰차이가 있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 나프타수요의 65%는 석유화학용으로, 나머지는 휘발유생산등의 정제과정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소비국인 일본은 '89년 19.3백만톤을 수입했는데 이중 71.3%를 中東에 의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프타수요는 에틸렌생산능력확대 및 휘발유소비급증으로 '95년까지 연평균 6%증가하는데 반해 域내 공급은 경질제품 소비급증 및 정제능력제한으로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역의 석유화학산업 급성장으로 에틸렌 생산능력은 현재의 10.7백만톤에서 '92년에는 13.4백만톤, 90년대 중반이후에는 20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휘발유 소비 증가로 휘발유생산용 나프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프타 수요는 현재의 114.9백만톤에서 '92년에는 122.8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나프타의 域内공급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정제시설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년동안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나프타 공급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域内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은 현재의 12.5백만b/d에서 '95년까지 연평균 2.5-3.5%의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의 경질제품 소비급증으로 정제시설의 나프타공급능력 역시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나프타 수요충당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나프타의 공급부족이 심화되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입국은 작년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아시아·태평양지역 나프타 수급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톤)

	1988	1989	1990	1992	1995	2000
아시아·태평양지역 공급부족	-11.08	-13.00	-16.08	-15.09	-16.25	-18.46
수요	101.56	107.50	114.95	122.80	138.32	158.56
공급	90.58	94.50	98.87	107.71	122.07	140.10
日本の 공급부족	-18.13	-19.95	-21.26	-19.51	-19.18	-21.90
수요	43.40	46.25	47.74	47.50	48.17	51.66
공급	25.27	26.30	26.48	27.99	28.99	29.76
지역별 공급과부족						
북미	-5.30	-4.90	-2.81	-3.19	-6.41	-9.44
중동	18.63	19.60	21.42	23.13	23.98	24.72
유럽	-18.13	-19.95	-21.26	-19.51	-19.18	-21.90
남미	1.79	1.65	1.87	2.69	4.41	5.97
동유럽	6.30	6.19	7.95	7.32	6.64	6.80
아프리카	7.15	6.20	7.45	7.35	7.44	7.21
세계 합	1.16	1.55	4.02	2.30	0.78	-3.82

<자료>TECNON, 1990. 4.

감수하면서 안정적인 공급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사우디로부터 연간 6.7백만톤의 나프타를 수입하고 있는 日本은 '91년도 계약협상에서 사우디의 Aramco가 제시한 프리미엄(작년의 두배)을 작년수준(\$4~6)과 절충하는 선에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사우디의 Samarec는 프리미엄을 작년의 두배에 가까운 \$12-20/톤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체결된 3백만톤의 계약에서 프리미엄은 \$6.5-8.5/톤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바레인의 對日 수출 프리미엄은 작년의 톤당 \$8-9에서 \$18-19로 결정되었고 바레인의 Banoco는 톤당 \$20-25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공급압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日本은 석유화학용 원료다원화 및 나프타의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日本의 석유화학업계는 걸프사태 발발이후 공급압박 및 비용경감을 목적으로 중질NGL을 중심으로 代替原料 확보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日本의 昭和공장은 금년초 후주로부터 10.5만톤의 重質 NGL을 수입하고 있으며 三井化學도 호주에서 7만톤을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질 NGL 및 부탄의 원료 공급비율을 40%까지 끌어 올리고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할 움직임이다.

기타 석유화학 기업도 설비개조를 통해 대체원료의 사용을 높일 계획인데 업계는 나프타가 石油輸入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질 NGL의 석유수입세(₩2,040/kg)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프타의 수입선 다변화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日本은 기존의 사우디, 바레인, UAE, 싱가포르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수입선을 인도, 필리핀, 이집트, 알제리등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나프타의 프리미엄인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전환능력부족과 사우디의 수출전략에 의해 '9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압박이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프타 이외의 원료공급비율은 92년에 최고 28%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LPG와 콘덴세이트의 원료공급비율이 현재의 5%에서 '95년에 10~15%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콘덴세이트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급증으로 추가 공급능력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우디는 나프타의 현물시장 공급물량을 계약에 의한 공급으로 전환하고 중개상 대신 소비자의 直去來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프리미엄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